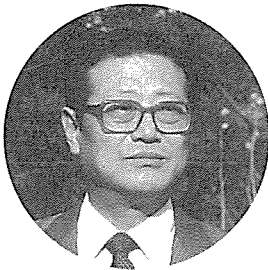


지구환경시대와 새로운 조경패러다임

“두번째 노아의 方舟 造景人の 손으로”



盧 隆 熙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 환경법

태초에 신에 의하여 창조된 이 세계는 질서와 조화로 충만한 「cosmos」의 세계였다. 창조주인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지어낸 후 마지막으로 인간을 완성하였으며, 인간에게 모든 피조물의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 이것은 권리인 동시에 의무로서 창조의 섭리에 의해서 피조물을 돌보며, 자연을 가꾸고, 보전하라는 지상명령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인간은 자연을 정복할 수 있으리라는 우월감, 자연이라는 자원을 무한하다는 전제하에,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고도의 경제성장을 최고의 선이라고 생각하여 무절제한 자원의 남용과 개발을 주도해 왔으며, 이러한 고도의 물질문명의 추구에 대한 왜곡된 세계관과 가치관이 오늘날 인류가 당면한 제반 환경문제의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1952년 12월5일부터 9일까지 런던시내를 덮은 「살인스모그」로 약 4천여명이 기관지염과 폐렴으로 사망하였고, 그후 3개월동안 호흡기질환이 악화되어 약 8천여명이 사망하였다. 1956년

에는 일본의 어촌 미나마따현에서 사지가 마비되고 듣지도 보지도 못하며 온몸이 비틀어지는 환자가 발생한 뒤 무려 870여명 이상이 사망하였고 그 원인이 수은중독이라는 것을 규명하는데만 13년이 걸렸다. 그러나 이러한 예는 국지적, 지역적인 환경오염으로서 범지구적인 환경악화의 전조에 불과하였다.

「프레온 가스」의 남용으로 지난 10여년간 남극상공의 오존층은 절반이, 칠레남부의 상공은 1/4이, 북반구지역은 3%정도가 얇아진 것으로 관측되고 있으며, 질소산화물과 아황산가스의 증가로 인한 산성비가 독일산림의 1/4을 황폐화시켰고, 스칸디나비아와 캐나다에서는 이미 수천개의 호수가 물고기가 살수없는 죽음의 호수로 변해버렸다.

1990년 8월 UN환경계획(UNEP)과 세계기상기구(WMO)가 공동으로 구성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위원회(IPCC)}는 ‘온난화에 대한 과학적 평가, 기후변화의 영향평가와 대책’이라는 보고서에서 온실효과가스의 농도를 안정화시

키지 않으면 앞으로 50년 동안에 기후대가 수백 키로씩 극지방으로 이동하고, 해면수위가 30~50cm 상승하여 농림업, 육상생태계, 인간의 주거환경에 파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가 하면 이산화탄소의 흡수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유전자 자원의 보고로서 큰 몫을 담당하고 있는 삼림이 감소되어 지구온난화를 부채질하고, 생물의 종을 멸종시키고 있는데, FAO와 UNEP의 보고에 의하면, 매년 전체의 1%에 가까운 1,700만 헥타의 열대우림이 감소되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따라 1년에 멸종되는 생물의 종수가 1900년에는 1조이었으나, 1975년에는 1000종, 2000년까지는 1년에 평균 4만여종이 멸종할 것으로 보여,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21세기 중반에는 생물의 절반이 지상에서 영원히 자취를 감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환경오염의 심화로 인하여 더 이상 방치한다면 후일에 가서는 회복불가능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우려가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으며, 환경문제의 광역화(transboundary) 성격으로 인하여 과거 각 국가의 개별적인 문제로 인식해 왔던 환경문제가 최근에는 점차 인접국가간 내지 범세계적인 문제로 확대되어 가고 있어 환경분야의 국가간 협력의 필요성이 날로 증대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UN에서는 지구를 살리려는 노력의 강도를 보다 구체화시켜 나가고 있으며, 이러한 방안의 하나로 1989년 제44차 유엔총회에서는 1972년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유엔 인간환경회의의 개최 20주년을 기념하고, 범세계적인 지구환경보호와 개발의 조화를 모색하고자 1992년에 브라질 리오 데자네이로에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를 소집할 것으로 결의했던 것입니다.

지난 6.3~6.14일간 리오데자네이로에서 열렸던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는 전세계 114개 국가 정상급을 비롯한 178개 정부대표와 3만여명의 환경전문가 및 민간환경단체 대표가 참가하였으며, 향후 지구환경질서의 기본원칙이

될 「리우선언」이라고 불리는 「지구헌장(The Earth Chapter)」과 그 실천계획인 '의제 21(Agenda 21)'을 채택하였습니다.

「리우선언」은 전문과 28개원칙으로 구성된 지구환경질서의 기본 규범으로서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에서 작성한 우리들 공유의 미래(Our Common Future)라는 보고서의 주된 테마인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SSD, Environmentally Sound & Sustainable Development)'의 구현을 위한 인류의 노력을 천명하고, '의제 21(Agenda 21)'은 리우선언의 구체적인 실천계획으로서 지구환경문제의 원인이 되는 각종 사회, 경제적 요인들에 대한 개선방안, 대기, 해양, 폐기물, 토지 등 각종 환경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그리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재정, 기술이전 및 제도문제등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이행체계를 규정한 행동강령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회의에서는 에너지 수급동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기후변화협약」 그리고 유전공학에 영향을 미치게 될 「종다양성협약」 열대삼림의 관리에 대한 「삼림 기본지침서」를 채택하였다.

결국 스톡홀름회의 때 「유엔인간환경선언」이 자연과 인간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얻은데 뒤이어 또다시 국제사회에서 개발과 환경을 통합시킨 새로운 개념인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SSD)'을 정립하여 범지구적인 환경문제를 다루어 나가는 지구환경의 기본질서로 도입한 새로운 환경시대의 막을 열게 된 것이다.

이러한 배경과 시점에서 볼 때, 금번 세계조경가대회(IFLA)의 개막은 커다란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으며, 새로운 지구환경시대를 선도하는 전환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지구환경의 기본질서로 도입된 ESSD의 핵심인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이란 '미래의 우리 후손들이 그들 스스로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가능케

하는 능력과 여건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의 우리 스스로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성장'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 말은 지금까지의 기존의 개발방식이 지구환경용량을 고려치 않은 무한한 생산과 무한한 소비를 가져오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개발(Unsustainable Development)을 함으로서 환경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구환경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제한적인 개발, 즉 지속가능한 개발을 하지 않는다면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1974년 11월 미국조경학회(ASLA)에서 내린 조경의 정의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조경이란 자원의 보전과 보호에 관심을 두고 문화적, 과학적 지식을 동원 활용하여 자연요소와 인공요소를 적절히 조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공유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토지에 관한 설계, 계획 및 관리의 기술이다.' 이 정의는 바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SSD)이 우리 조경인의 의무이자 우리 조경인이 선도자임을 암시하고 있다.

1960년대, 그 당시 과학자들이 세계의 환경문제를 모든 방면에서 절망적인 내용으로 지구의 위기를 이야기하고, 가장 기초적인 이론가들조차 이 지구가 빙하시대로 되돌아 갈 것이라는 비관적인 환경론이 대두되고, 전 세계적으로 환경운동이 이제 막 시작될 즈음, 조경에서는 Ian McHarg로 대표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인 생태적 접근방법이 희망적인 외침으로 탄생되었다. 생태계획과 그 방법들을 서술한 'Design with Nature'는 저술한지 20년이 지난 지금도 조경적인 차원을 넘어 디자인과 계획가들, 심지어는 생태학 자체의 연구에 있어서 지침서가 되고 있다. 오늘날 개발에 있어서 강제조항이된 환경영향평가도 그 언어와 도구, 방법에 있어서 과학적인 McHarg의 방법을 원용하고 있다. 이것은 바로 환경문제의 해결의 선구자가 조경가였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1960년대 새롭게 도입되었던 생태적 접근 이후, 조경의 패러다임은 환경심리학의 도입으로 행태적 접근이 이어졌으며, 고도의 경제성장으로 경제적 기반이 안정을 이루게 되자 심리적 접근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범지



구적인 환경문제가 이슈화되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인간의 건강과 복지를 강조하게 되면서 다시 인간생태학적 접근이 도입되고 있으나, 종합과학예술로서의 조경에 있어서 심미적 측면의 고려가 미흡하다는 제약으로 인해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다. 따라서 ESSD개념이 세계의 환경질서로 새로이 대두되는 지구환경시대를 맞아, 이제 우리 조경도 지금까지의 패러다임을 종합하고 더 발전적인 방향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립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인류사 속에서는 두가지 중대한 드라마가 진행되고 있다. 그 하나는 공산주의라고 하는 무신론적 휴머니즘을 중핵으로 한 정치·사회시스템의 해체이고, 또 하나는 범지구적 규모로 일어나고 있는 오염현상이나 자연과 환경의 파괴가 쉴 줄 모르고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후자의 경우, 그 원인을 더듬어 보면 인간활동의 결과나 궁극적 대가에 대한 신중한 배려없이 과학기술을 자기욕망의 충족을 위해 봉사시키고 자연을 지배, 정복해 온 현대인의 야심에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일찍이 오즈발트 슈펜글러(O. Spengler)는 외부를 향해 끝없이 무엇인가를 추구하면서 위로 위로 전진만을 계속해 가면서도 결코 만족을 못 얻는 전투적인 인간을 파우스트적 인간(Faustian man)이라 하였고, 레이몬드 아론(Raymond Aron)은 프로미테우스 인간(Prometheus man)이라 하였다. 현대인이 이러한 징후군을 띠게 된 것은 진보사상의 마력에서 벗어나지 못한 탓이 아닌가 생각된다. 진보는 무조건 선이고 무한하게 지속되어야 한다는 진보사상은 데카르트(R. Descarte)에 의하여 체계화되고 밀(J.S. Mill)이나 콩트(A. Comte)에 이르러 하나의 세계관으로 자리를 잡아 다윈(C. Darwin)에 이르러 보편적인 법칙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과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데카르트는 그리스 철학의 유클리드원론을 신봉해 서구문명의 기초가 되는 논리학으로 동일론(같은 값이다), 모순론(비같은 값이 아니다)을 굳게 믿고 분석의 틀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과학은 불변이고 보편타

당성을 지닌 것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전체는 부분의 결과라는 사상을 확립시켰다. 이래서 실증과학만이 현상을 이해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알려주었다. 종의 기원으로 유명한 다윈은 자연도태, 적자생존의 원칙에 따라 완전무결성(Perfectability)을 향해 진화해 가는 물질적 사회적 진보는 보편적 법칙이라 하였고, 스펜스(Herbert Spencer)도 이에 동조하였다. 이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한 서구의 과학기술문명은 오늘날 개발과 근대화의 최선의 모델이 되고 진보사상은 현대인의 세계관으로 되었다. 오늘날의 환경문제도 따지고 보면 서구문명의 자연관, 그리고 전체를 하나로 보지 못하고 부분으로 파악해서 그 취합이 전체라고 믿는 분석방법과 배중률로 인하여 사물을 디지털하게 보는데서 연유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자연을 인간의 대립자로서 지배 정복한 대가가 환경파괴를 몰고왔고, 부분의 집합을 전체로 보는 사고방식이 개발과 환경을 별개로 생각하게 만들었으며, 배중률로 인한 이원론이 중간적 통합을 곤란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점에 대한 보완책이 없는 것이 아니다. 지구는 대기와 바다를 포함한 하나의 생명체라고 보는 가이아니즘(Gaianism), 컴퓨터 분야에 도입된 퍼지콘트롤(Fuzzy Control), UN이 채택한 ESSD등 새로운 이론과 개념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한번 다시 동양적 불이론(東洋의 不二論)을 통해 서양적 이원론을 극복해 보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동양사상에는 밀으로는 물활론(Animism)으로 부터 무위자연(無爲自然)의 도교의 주장이나 제행무상(諸行無常), 제법무아(諸法無我), 제법실상(諸法實相)과 같은 불교의 교리 및 중용(中庸)을 내세우는 유교사상에 이르기까지 통합원리(統合原理)를 마련하는데 적지않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상이 있다고 본다.

보편화는 동시에 특수화를 불러들인다고 한다. 이에 서구문명의 보편성이 몰고 온 환경문제는 동양문명의 특수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하드웨어(Hardware)에서 소프트웨어

(Software) 시대로 들어왔고 새로운 시대적 요청에 서구문명의 그늘에 가려 빛을 못본 동양문명이 재조명되어야 할 때가 온것 같다.

우리 한국은 5천년 동안이나 역사의 단절없이 전통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5천년 역사와 마찬가지로 우리 조상들에게 면면히 이어져 온 자연관이 있다. 집을 짓고 정원을 만드는 것부터 국가의 도읍지를 정하는 데 까지, 우리 민족은 「자연순응」이라는 자연관을 이어왔다. 자연을 거슬르지 않고 자연이 있는 그대로, 자연이 흘러가는 대로, 자연에 순응하여 축조될 조형물이나 도읍지를 입지시켜 온 것입니다.

이 「자연순응」사상은 바로 「以順得利」의 사상이 한국화 된 것이며, 이 「자연순응」이야말로 무절제한 자원의 남용과 개발의 부작용인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해 줄, ESSD의 근간이 될 것이며, 새로운 조경의 패러다임 정립에 있어서 하나의 모체가 될 것입니다.

이제 지구환경의 보전은 세계적으로 더욱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게 되었고 각국의 협력에 의한 진지한 대책이 시작되고 있다. 환경이라는 제한된 자원은 인류전체가 같이 이해하여 현재의 세대로부터 미래의 세대에 이어가지 않으면 안된다.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위해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세계전체 및 우리 자손에 대한 책임을 자각하고, 간단히 환경뿐 아니라 그 배경에 있는 경제, 사회 등의 구조에 까지 거슬러 올라가 생산, 소비활동부터 일상생활의 각종 측면에 있어서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국제사회에 있어서 국가간의 정치적, 경제적인 상호의존, 자원의 유한성, 환경문제의 지구적 확대등을 의식할 때, 오늘 여기 모이신 모든 나라의 전 조경가들이 국경을 초월한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옛말에 「溫故知新」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옛것을 배우고 익혀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바로 본 대회의 주제인 「전통과 창조」에 걸맞는 표현일 것입니다.

보전과 개발이 양립되어야 하듯이 이번 대회의 주제인 「전통과 창조」도 양립되는 개념이다.

보전이 개발의 원동력이 되듯이 전통은 창조의 열쇠이다. 하나하나의 전통을 모으고, 체계화 할 때 비로소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생태적 접근으로부터 면면히 이어온 환경의 보전과 창조에 대한 조경의 전통적 패러다임이, 지구환경 시대를 맞아 「자연순응」의 사상을 모체로 새로이 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조경인들은 본 대회를 계기로 ESSD적 개발개념으로 재무장하고, 전면개발, 부분보전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계획분야의 혁신운동에 앞장서야 할 때이다. 이와 함께 사후계획으로서의 수복계획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위상을 뒤바꾸어 사전적 환경 파괴방지는 물론 환경창조를 위한 새로운 기수로서의 확고한 위치를 확립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지구환경문제는 오염사후의 정화처리인 환경공학적 문제가 아니라 생태적 자정능력을 높이고 오염발생을 근원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우리 조경인에게 달려 있다.

조경이란 소극적 의미에 있어서는 환경의 보전이며, 적극적 의미에 있어서는 창조인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조경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우주만물을 지어내신 창조주일 것이다. 이제 창조주는 재창조(Recreation)의 임무를 조경가에게 부여했다. 인간과 자연과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여 함께 존재하도록 한 창조의 섭리를 모든 인류에게 선언해야 할 의무가 우리 조경가에게 있다.

즉, 지구환경시대를 맞이한 우주선 지구호의 두번째 노아의 방주는 우리 조경인의 손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단 하나뿐인 지구,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푸른 빛을 띠는 혹성인 지구, 이 지구를 잿빛과 적색이 아닌 더욱 푸른 색으로, 불투명한 대기가 아닌 더욱 투명한 대기로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 조경인 모두의 책임일 것이다.

◇이 글은 IFLA한국총회조직위원회 주최로 열린 제29차 세계조경가협회 총회에서의 기조 강연내용을 전재한 것임 ……………〈편집자〉